광양시, '찾아가는 재능봉사 같이×가치' 1차 활동 마무리

민·관 협력 통해 맞춤형 재능나눔… 진월면 어르신에 감동 전해 '온기나눔 확산'

광양시(광양시자원봉사센터)는 5월 28일 진월면 달빛나루종합복지센터에서 '2025년 놀면 뭐하니? 찾아가는 재능봉사 같이×가치' 사업의 첫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1차 활동은 중마노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이동복지관 '미라클래스' 참여 어르신과 가족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마노인복지관이 트롯댄스와 노래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모두愛밥차는 따뜻한 중식을 제공했다. 서산나래희망구움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빵 꾸러미를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광양만사람들 △중마동새마을부녀회 △동사모 △너랑나랑나눔봉사대 △사랑굽는사람들 △광양평생교육개발원 △깎아헤어이미용재능봉사단 7개 재능봉사단체가 이·미용 서비스, 장수사진 촬영, 즉석 간식(붕어빵, 와플, 뻥튀기)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사진을 찍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먼 곳까지 직접 와서 머리 손질도 해주고 따뜻한 밥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 하루가 생일보다 더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찾아가는 재능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이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다"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30일 광양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광양노인복지관, 중마노인복지관, 서산나래 등 4개 기관은 '온기나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연계,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빵 꾸러미 기부 등 역할을 분담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HD현대삼호 노사 교섭위원들이 지난 27일 회사 지원관에서 열린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노사,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 요구안 전달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 노사가 올해 본격적인 임금 협상에 돌입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7일 회사 지원관에서 김재을 사장과 노동조합 황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에 전달된 HD현대 조선 3사 공동요구안에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정년 연장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HD현대삼호 노조의 개별 요구안에는 ▲하기 휴가비 인상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자격면허 수당 신설 ▲야간근무자 처우 개선 등이 제시됐다.

황형수 지회장은 "회사의 성장과 조합원의 이익을 아우를 수 있는 교섭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을 사장은 "노사가 상생의 마음으로 교섭에 적극 임해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삼호 노사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연내에 타결한 바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서구아너스 '5월의 산타'로 깜짝 변신

취약계층 90가구 직접 방문해 30만원 상당 선물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5월의 산타'로 깜짝 변신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서구아너스는 29일 서구 관내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2인 이상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90세대를 직접 찾아가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오월애(愛) 찾아온(溫) 깜짝산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광주서구가족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아너스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5곳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을 추천받아 선정됐다.

서구아너스는 가구당 온누리상품권 15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 여름침구(10만원 상당) 등 총 30만원 규모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더했다.

선물을 받은 한 가정은 "깜짝 찾아온 산타 덕분에 아이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착한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또 선물을 전달한 서구아너스 회원은 "기부는 단순한 물질

나눔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며 "아이의 밝은 웃음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5월에 모든 아이와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서구,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나주경찰, 예약 부도(노쇼 사기) 관련 범죄예방 활동 적극 전개

노쇼 사기 특별 경보 발령에 따른 현지 홍보 활동

나주경찰서(서장 권석진) 노안파출소에서는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예약 부도(노쇼 사기)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식당과 카페 등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전단지를 직접 대면 배포·배부하면서 피해 사례 및 범죄유형에 대해 상담·안내를 실시 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 부도(노쇼 사기)'는 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음식 및 물품을 대량주문 할 것처럼 가장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수법으로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매니저·대통령 선거 캠프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안파출소(소장 홍제욱)는 "대량 주문을 받을 경우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구매 및 배송비 선입금 등 의심스러운 요구가 있는 때에는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고흥군, 섬마을 찾아 촘촘한 의료서비스 제공

상·하화도 주민 50여 명 대상 우울증·치매 검사 및 상담 진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8일 전남병원선과 연계해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자가 많은 의료 취약지역인 도양읍 상·하화도에서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치매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서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센터 소속 전문인력 등 총 10명이 한 팀을 이뤄 상담과 검사를 진행했다.

상담 및 검사 내용은 정신건강 상담, 우울증 선별검사, 인지 선별검사, 치매 조기검진 등이며, 검사 결과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치매 등 소견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1:1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상반기 상·하화도에 이어 하반기에는 시산도를 방문해 정신건강 및 치매

이동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및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병원선과 협력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며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